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장애인 삶 변화시킬까?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2.02.28. _ Vol.416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르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전국신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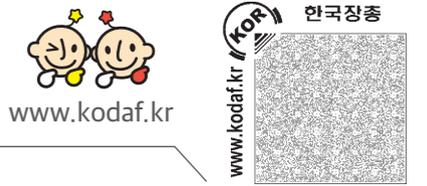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장애인 삶 변화시킬까?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찬길

2022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예정임.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이기에 정당별 대선후보가 발표한 장애인 공약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장애인정책의 진정성을 살펴보고자 함

또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공약을 알아보고 대통령선거 후 장애인의 주체적인 욕구를 담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함



01 대통령선거는 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중요한 시작점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통령선거

-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약 5년이 지난 후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임
- 대통령선거는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 아니라 장애인 등 각 계층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치러지는 가장 중요한 선거이자,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작점이기도 함
-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공약들은 향후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공약 외에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방향성까지 영향을 미침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어렵고 불편하게 변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절실한 시점임
- 각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알아보고 장애인이 원하는 공약을 제안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담긴 정책 제도들을 실행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대통령선거를 대하는 장애계 노력

- 장애계는 2000년부터 매 선거마다 선거연대를 구성하여 장애계 요구 공약 마련, 직접 정치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의 장애계 현안을 해결해 왔음
- 정당이나 후보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장애인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해 공약을

제안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2017 대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공약 15개를 제안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총 6개 장애인 공약을 반영하였음

제19대 대통령 장애인공약과 이행결과

- 2017 대선장애인연대는 4개 영역 15개 공약을 각 대선후보에게 제시하여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참정권 보장과 정책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7 대선 장애인연대에서 요구한 15개 공약 중 6개를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9개의 장애인 공약 이행결과는 ¹ 어떠한지 먼저 점검해보고자 함

문재인 대통령 공약	대선장애인연대 요구 공약	추진결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일부반영	일부추진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반영	추진 중
장애인 교육·문화권 확대	반영	추진 중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반영	미추진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반영	미추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미반영	일부추진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해당 없음	일부추진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해당 없음	일부추진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해결	해당 없음	추진 중

1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제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¹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8호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7가지 과제>(2021.06.30)



-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제도, 중증장애인 우선 고용정책 수립(5%),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 중증 및 경증여성 고용장려금확대, 장애인연금 30만원 인상
 -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제도 미반영, 의무고용률 3.4% 유지, 부가급여 현실화 및 대상 확대 미추진

2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인권 및 권리보장 대책 수립, 개인별 욕구 및 권리 기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정부안 발의(2021.10),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1차(일상생활), 2차(이동 지원)도입, 3차(소득·고용) 예정

3 장애인 교육·문화권 확대

- 특수교사 정원 확보 및 정규직 교사 채용, 장애 학생 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 종합대책 수립: 교원 충원 및 특수 학교 확충, 전공과 기능 강화 및 지원
 - 특수학교 170개('16)에서 187개('21) 17개 증가, 특수교사 정원확보 79.3%('20) 충원 중, 평생 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및 문화예술학교 지원

4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
 - 탈시설 지원로드맵 발표('21.8)
 - 자립지원금, 탈시설지원센터 미추진,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결과 확인 어려움

5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 기본계획 수립, 임신·출산·양육 등 서비스 우선 지원과 확대

→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논의, 기본계획 및 전담부서 없음, 지원 확대 없음

6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 시·청각장애인 접근권 확대, 긴급방송의 자막 및 수어 의무화, 미디어지원센터 설립, 방송장비 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 저소득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99%('20), 수어방송 실시 위한 고시 개정

7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인력 및 서비스 질 강화,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등
 -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3.5%로 인하(기존 4.03%), 일부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10개 설립
 - 24시간 활동지원 지자체는 9곳 뿐, 건강주치의 3년 째 시범사업만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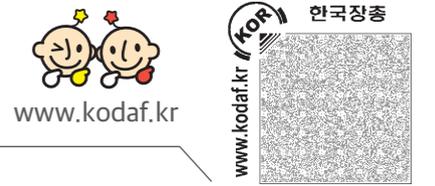
8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 장애인부모 무료 상담 지원, 양육정보 시스템 구축,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
 - 장애인부모 무료 상담: 월 20만원 바우처 지원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 미진행

9 범죄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

→ 대구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주체 변경,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쇄, 대구 남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수행

- 이외에 장애인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지원 확대,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은 모두 추진 중인 상황임



-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방향성을 보였음
-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추진·이행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은 부분도 있으나, 추진이 미비하거나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음
- 장애계는 2022 대통령 선거 후 장애인이 원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02 2022년 대통령선거, 장애인이 요구하는 공약은?

2022 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요구안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37개 단체는 2022 대선장애인연대를 구성해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과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2021. 11. 30.)
- 특정 정당,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책 분야별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특정 욕구보다 '장애계 공동이익'을 우선으로 공약을 마련하였음

대선장애인연대가 제안하는 정책방향

- 복지, 고용, 교육 뿐 아니라 모든 정부정책이 항상 장애인을 고려(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한 만큼 장애인이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장애인 개별 지원 선택권 강화)
-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 환경 변화(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환경 강화)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10대 공약²

- 1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지자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국가 기관 및 지자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 의무화
- 2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도입, ▲장애인권리보장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 3 개인예산 도입**
 - ▲개인예산제도 도입, ▲교통바우처제도 도입, ▲OECD 국가 평균 수준 예산 증대를 위한 로드맵 수립
- 4 장애인등록 폐지**
 -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 개선, 할인·감면제도 정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 5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 기본소득 개념 도입, ▲국민연금 조기 수령, 특례장애인연금 도입
- 6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최저임금법 개정)
- 7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 ▲개인별 맞춤형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 선택권 강화, ▲공공(임대) 공급 물량 확대 및 주거편의 설치지원
- 8 장애인 재난안전 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광역시·도 장애인재난대응훈련센터 설치
- 9 단체소송제 도입 및 장치법 소관부처 이관**
 - ▲단체소송제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² 2022 대선 장애인연대 공약 요구안 전문(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46)



구제등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이관

⑩ 한국판 뉴딜전략에 장애인 고려

▲장애인을 포괄하는 한국판 뉴딜전략 추진, ▲ 과학기술 개발 및 서비스 도입 시 장애인접근성 고려하여 법, 규정 개정

- 2022 대선장애인연대 공약 개발에 참여한 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복지, 고용, 교육 등 모든 정부정책이 항상 장애인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정책의 ‘포괄성’과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한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장애인 ‘자립’을 위해 사회 환경이 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
2022 대선장애인연대 공약 발표 및 전담식(2021. 11. 3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21. 11. 30. 2022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안은 각 정당 대선후보캠프에 전달하여 장애인의 주체적인 욕구를 담은 공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 이와 함께 ①고용·창업 ②건강 ③교육 ④이동 ⑤활동지원 ⑥정보접근 ⑦고령장애인 ⑧여성 장애인 ⑨국제협력 ⑩문화예술체육관광 ⑪서비스 지원 인력 및 제공기관 ⑫장애인 권리 보장 및 복지지원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했음
- 공약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장애복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초 원동력으로 삼고자 함을 알 수 있음
- 장애인개인예산제도,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장애인연금 확대를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 유형·특성별 장애인단체의 요구 공약은?

- 전국장애인유권자연대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참정권 확대’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의 인권, 복지 등을 고려하여 정치 참여,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약을 2개 영역, 5개 공약으로 발표했음(2021. 12. 21.)

☑ 제도개선

- 장애인동료상담사 국가자격제 도입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난이도에 따른 차등화된 행위별수가제 도입

☑ 복지지원

-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개선
- 문화예술과 여행활동 지원
- 발달장애인의 참정권과 탈시설 지원

-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4대’ 정책을 발표하고 각 대선후보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했음(2021. 0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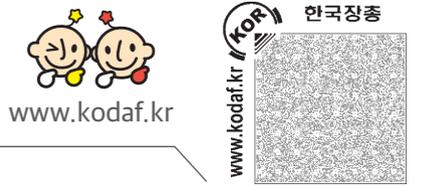
☑ 인공호흡기 착용 중증장애인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 개편

☑ 신경·근육장애인 의료급여 1종 대상 포함

☑ 유년기 장애로 인한 학년기 학습권을 위한 사교육비 지원

☑ 신경·근육장애인을 위한 전문 생활센터 설립·운영

- 희귀질환으로 인해 소수 장애인인 근육장애인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근육장애인의 삶의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중심으로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했음(2021. 10. 29.)

- 1)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평등 보장
- 2) 공공영역 장애감수성 반영, 장애인 사회참여 보장
- 3) 공무원 사회고용 직무, 기타재가급여 안마서비스 신설 등을 통해 노동 기본권 보장
- 4) 장애가정 청소년 복지체계 구축
- 5) 장애인 중심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6) 장애인을 위한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 7) 고령장애인 지원시스템 구축
- 8) 장애학생 취업 지원 및 평생교육 강화
- 9) 최저임금적용제도 폐지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 기업 전환
- 10)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이행 강화

- 장애계 요구 공약을 살펴보면 장애유형의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있으나, 포괄적으로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03 장애인 위한 대통령 후보 별 주요 공약은?³

■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정책발표 기자회견담회(2021. 08. 30.)
©이재명 열린캠프

- 2021. 08. 30. 이재명 후보는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에서 장애인, 어르신, 환자,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정책을 언급했음

- 이재명 후보는 “장애로 인해 소외 되서는 안 되며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3가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음

☑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 양성, 행위별 차등 수가제 도입을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독립, 자립 지원

-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독립, 시설로부터 자립할 때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주치의제도를 통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도입

-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장애인공약은 다음과 같음

☑ 2021. 12. 03.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 교통, 건축, 도시, 제품, 환경 등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공공부문 시행, 차후 민간영역 확대
-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 시행

☑ 2022. 02. 03. 의료·공공기관 수어통역사 배치, 수어통역사 전문 교육과정 마련

3 ※ 소속정당이 국회의원의석을 가진 4명의 후보 공약 소개, 2022. 2. 16. 기준 각 후보 발언, 발표 등을 근거로 일자순으로 작성



2022 대선장애인연대 정책 간담회(2022. 01. 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22. 1. 25.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2022 대선장애인연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공약이 간략하게 소개되었음
- 소득지원 측면에서 장애인연금 확대와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 서비스 측면에서 활동지원의 양·질적 확대와 치과서비스 및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의료 서비스 확충
- 자립지원 측면에서 이동권 확보 및 지원주택 제공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복지 예산 비중 OECD 선진국 수준 확보
- 2022.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10대 공약[복지, 안전] 중 '장애인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자립 지원'으로 ▲상시 서비스 체계구축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부문부터 확대, ▲대통령 직속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예산 증액,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아동)수당 소득하위 70%까지 단계적 확대 등을 포함했음
- 2022 2. 16.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는 슬로건과 함께 장애인 5대 공약을 발표했음
- 지난 2022 대선장애인연대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 된 장애인연금 확대,

주치의제도 활성화, 이동권 및 주택 지원 등이 포함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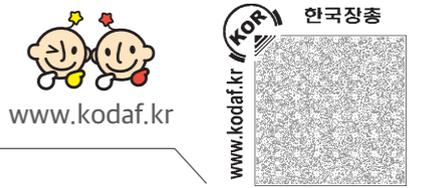
- ☑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중앙 및 지방 정부 장애인 채용 확대, 장애인 등록제 폐지 및 서비스 신청제 도입,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
- ☑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 장애인연금 하위 70% 중증장애인 확대, 아동(장애) 수당 하위 70% 확대, 최저임금적용 제외 정부 보조, 장애 학생 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 권리보장
-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특별교통수단 지원, 공공 주택 확충, 장애인주치의제도 시행, 장애인 재난 전담부서 설치
- ☑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 장애여성 지원체계구축, 고령 장애인 지원체계 확충, 영유아 장애관련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위기쉼터, 장애인 위기지원 체계 확립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2021. 12. 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21. 12. 10. 윤석열 후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제23회 '지도자대회'에서



-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였음
-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이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 욕구기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선택권 강화'를 강조하였음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전통적인 일자리뿐 아니라 AI 시대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고용 확충을 발표함
- 이동수단 확대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비율은 현행 25%에서 대폭 늘릴 것으로 이야기했으나, 구체적인 수는 발표하지 않았음



윤석열 후보 장애인공약 발표 기자회견(2021. 01. 19.)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2022. 01. 19. 윤석열 후보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윤석열의 다섯 가지 약속>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음
-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4차 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 5가지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음
- ☑ 장애인 이동권 확대
 - 저상버스 의무화를 통해 시내버스 외에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모두 교체해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편의성 향상
 - * 현행 시내버스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화
 - 현재 많은 장애인이 불편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증차를 통해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장애인이동권 향상 및

중증장애인 택시호출서비스 앱 보급

- * 150명 당 1대 → 100명 당 1대
- 시각장애인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의 기술투자를 하고 보급
- 시각장애인 안내견 분양 현재 연간 15마리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

☑ 개인예산제 도입

- 개인예산제는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도입한 제도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정해진 예산을 지급해 개인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교육, 교통 등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하는 제도
-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해 현재 공급자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등 공급자 중심 방식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전환
-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통해 개인의 선택으로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

☑ 4차 산업 장애인 인재 육성

- 장애인 고용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직업훈련제도를 강화
- 현재 전국 2곳(구로디지털훈련센터, 판교디지털훈련센터)뿐인 장애인 디지털훈련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 신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상담사 배치 및 전문 강사 양성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예술 교육 지원
-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프리 장애인 전용 창작공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작품 공연 및 전시 의무화 등 작품 전시 기회 확대



발달지연, 발달장애 영유아 지원

- 발달지원·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 발달지연·장애 진단과 치료, 교육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윤석열 후보는 5가지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장애인 여러분이 우리사회 당당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심상정 후보 장애인공약 발표 현장 (2021. 12. 03.)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2021. 12. 03. 심상정 후보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장애인 인권 수준이 바로 선진국의 척도”라며 크게 2가지 원칙, 7개의 공약으로 발표했다

장애인 지표 OECD 평균 이상 수준으로 향상

지역사회 환경 조성

1989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록제 폐지

- 협소한 장애범주로 많은 비법정 장애인이 서

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에, 신체·정신적 손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 서비스법으로 개정

- 의료적 관점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새로운 서비스 욕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서비스법으로 개정
- 장애인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2008년 국회에서 비준 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마무리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정부 정책 수립

장애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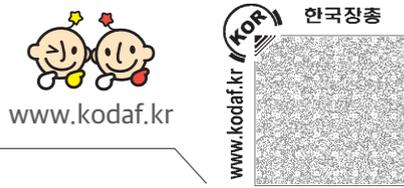
-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원활한 맞춤형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별 장애서비스센터 구축
- 장애인 권리 및 서비스 제공 재원 조달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및 장애인인지 예산 도입

10년 내 장애인 탈시설 이행, 지역사회 지원 체계 마련

-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여 시설 밖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비리시설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 탈시설을 위한 제도 마련

발달장애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 코로나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무장애환경 구축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100% 저상버스 교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50% 저상버스 도입
- 장애인콜센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중앙 및 광역 교통이동지원센터 설치 지원 및 공공성 강화
-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 마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시청각 장애인 음성 및 화면지원 보조기기 지원을 통한 정보접근성 향상

장애인 노동권 보장

- 헌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나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 장애인이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추진
-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 통합 운영으로 변경, 한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하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적극 창출
-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2021. 12. 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21. 12. 10. 심상정 후보는 전국지도자대회 (한국장총 주최)에서 다시 한 번 공약을 발표했고 추가적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

- 2022.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10대 공약 중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 장애인공약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장애인 예산 확보, ▲장애인등록제 폐지, 장애 서비스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비리시설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 탈시설 실현,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100% 저상버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 50% 저상버스,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 마련, 음성 및 화면지원 보조기기 지원 강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공약을 강조하였음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2021. 12. 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21. 12. 10.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전국지도자대회(한국장총 주최)에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언급하며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 OECD 국가들 평균 장애인지출 예산이 2%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0.6% 매우 저조하며 추세를 분석해 정책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매년 상승 추세에 있는 1인 장애인가구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 4가지 공약을 발표함

☑ **보편적 장애인연금 지급**

• 장애인가구 60%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빈곤층이 많고, 고용률이 전체인구보다 25%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해 월 40만원 지급

☑ **주거선택권 강화 및 안전한 주거활동 지원**

• 장애인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권 보장을 위해 활동감지, 온도 및 습도 측정, 화재 방지 등 안심 서비스를 개발 후 보급

☑ **이동권 보장**

•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장애인 이동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확대를 비롯한 교통 바우처 제공

- 이외에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지예산제 등에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해야 좋은 나라다”, “장애인이 살아가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2022.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10대 공약 중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 규정완화, 월 40만 원 보편적 지급,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확대, ▲주택개조~원상복구 비용까지 보조금 지원, ▲교통 바우처 제공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물인터넷형 안심서비스 지원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공약에 포함했음

▮ **자신만의 공약을 내건 후보들**

☑ **이재명 후보**

•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돌봄을 국가책임으로 전환시켜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고, 장애인연금을 하위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을 공공부터 적용시켜 민간까지 확대 해 장애인 편의성을 확보하고 국가장애인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음

☑ **윤석열 후보**

•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교육, 교통 바우처 등을 직접 욕구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중심 서비스 제공을 공약했음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창작공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 예술인을 양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심상정 후보**

• 장애인등록제 폐지, 장애인서비스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했음
•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신규시설 설립 금지 등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고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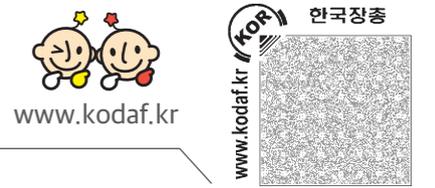
☑ **안철수 후보**

• 주택공급,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 예산지원을 통해 장애인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시설 확대와 안전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까지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음

▮ **장애인공약 분야별 차이점은?**

- 후보별 장애인연금, 고용, 돌봄서비스, 이동권,

04 **대통령 후보 별 장애인 공약, 장애인 삶 변화시키려면**



주거, 편의 분야 등에서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였고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장애인 연금	소득하위 70% 연금지급 / 장애수당 70% 까지 단계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소득하위 70% 규정완화 월 40만원 지급
고용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장애인 당사자 채용	4차 산업 인재 육성 /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 전국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 /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창출	
돌봄 서비스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AI 알고리즘 활용 예방책 마련 / 발달 지연·장애 조기개입센터 설치/발달장애 영유아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부모 친족의 활동지원 서비스 100% 보장 / 발달 장애인 부모 휴가 제도 지원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지원	저상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저상버스화 100% / 장애인콜택시 100명당 1대로 증차 / 시각장애인 이동권 강화/택시호출 서비스앱 개발	시내버스 대·폐차 100%,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 50% 저상버스화 / 교통 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확대를 비롯한 교통바우처 제공
주거	장애인 독립·자립 지원 지원주택 제공			주택공급, 편의시설 확대 및 안전권 보장 / 주택 개조~원상복구 보조금 지원
편의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부문 적용 및 민간 확대 / 공공부문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	편의시설 비율 확대		보조공학기기 정부 지원 / 시청각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

☑ **장애인연금, 하위 70% 규정완화 그리고 단계적 확대**
- 이재명,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연금을 소득하위 70%까지 완화하여 지급할 것을 공약했고 이재

명 후보는 장애수당 70%까지 단계적 확대, 안철수 후보는 월 40만원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함

-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음

☑ **장애인고용, 4차 산업 중심과 공공부문 고용 강화**

- 이재명 후보는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 채용 확대를 통해 고용 및 정책을 당사자 욕구에 맞추겠다고 함

- 윤석열 후보는 4차 산업 장애인 인재 육성을 위해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4차 산업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인재 육성을 하겠다고 공약함

-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과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함

-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연금 공약은 있으나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지 않았음

☑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와 AI 알고리즘 활용 그리고 가족 돌봄 인정**

- 이재명 후보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종합공약 발표를 하겠다고 함

- 윤석열 후보는 AI 알고리즘 활용으로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달지연·장애 조기개입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함

- 심상정 후보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함

- 안철수 후보는 부모·친족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인정하고 지원하겠다고 공약함

-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동지원을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는 가족돌봄을 인정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을 내세웠음



☑ 이동권,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 외 다른 교통 수단 공약은 부족

- 윤석열 후보는 저상버스를 현재 시내버스 외 시외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모두 100%로 전환하고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통해 100명당 1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함
- 심상정 후보는 시내버스 100%, 시내버스 외 50%를 저상화시키고 교통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겠다고 함
-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확대를 비롯한 교통바우처 제공을 공약했고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음
- 이재명 후보는 이동권 강화를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음

☑ 주거, 자립 위한 주거지원과 편의·안전 보장

-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가족으로부터 독립, 시설로부터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주택 제공을 공약했고 구체적인 계획과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음
-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 주택공급, 주거편의시설 확보 및 안전감지 등 안전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 주거욕구를 채우고 주택개조부터 원상복구까지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함
-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장애인 주거공약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

☑ 편의, 공공부문 유니버설 디자인과 보조기기 지원

-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민간시설로 확대, 의료·공공기관의 수어통역사 배치를 공약함
- 윤석열 후보는 편의시설 의무 설치를 2.5%에서 대폭 확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안철수 후보는 보조기기 지원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함

☑ 장애인이 원하는 욕구를 담은 공약이 필요하다

- 2022. 02. 18. 대선장애인연대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어느 후보도 단체소송 도입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4차 산업에 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책이 없다.”, “장애등록 폐지, 개인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음
- 장애인의 주체적인 욕구를 담은 2022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을 비롯한 장애계 대선공약에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되기를 제안함

☑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책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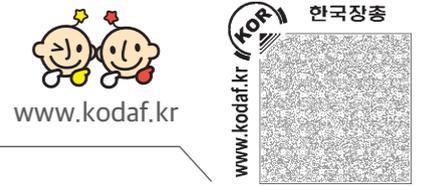
-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정책 수립 및 실행 시 정부부처 간 조율·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기반을 다질 필요성이 있음
-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장애책임관 지정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장애인 소득보장

-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장애인은 현재 최저임금 제외 규정에 포함되어 부족한 소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함
 -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폐지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되어야 함

○ 장애인연금 및 개인소득 보장

-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 가구의 비해 소득이 적고 고용률 또한 전체인구에 25% 이상 낮은 상황임
- 장애인연금 대상 및 규모 확대를 통해 장애



인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및 제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고 그 피해와 어려움은 장애인에게 더욱 크게 체감되었음
- 코호트 격리로 인한 무분별한 장애인 집단감염 및 사망사건을 포함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함
- 사회복지시설 휴관·폐쇄로 중증·발달장애의 돌봄공백은 오롯이 가족들에게 부담되었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은 버티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
- 실제 발달장애 아들과 어머니가 돌봄의 한계를 느껴 주차된 차에서 같이 생을 마감하고 보호자가 사망해 방치되어 노숙생활을 한 사건도 발생했음
- 시·청각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함은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제약되기도 함
-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장애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돌봄공백, 소통,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추후 재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 장애인 중심 정책 마련

- 뉴딜 산업 및 공공부문 영역에 장애인 중심

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4차 산업시대에 VR, AR,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등 장애인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야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 시 장애인 중심의 개발이 필요함
- 공공부문 또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제·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임

☑ 공약은 실천해야 공약이다

- 각 후보들은 선거직전까지 많은 공약을 발표했고 공통적인 부분, 특색 있는 공약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공약을 보고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은 투표를 할 것임
- 현 정부도 선거당시 9가지 장애인 공약 이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추진 혹은 추진 중인 상태이고 추진조차 되지 않은 공약이 있음
- 공약이란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에 재원확보, 실행계획 등을 실천가능하게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삶이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요한 시기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이므로 당선되는 후보는 말 뿐인 공약이 아닌 실천하는 공약을 반드시 보여줘야 함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2년 2월 28일 발행인 홍순봉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신입장애대학생!

KB국민은행 노트북과 손잡고

새출발!



지원내용

최신형 노트북 한 대와 장애유형에 맞는
디지털 학습보조기구(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

일반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2022년 입학한
등록 장애 대학생 **131명**

선발기준

장애정도, 소득수준,
활용계획서 및 필요성 심사

신청기간

2.28.(월) ~
3.11.(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www.kodaf.kr 에서 확인해주세요!